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Е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18년 10월 12일(금)
... (음력 9월 4일) ...

Пятница
12 октября 2018 г.
№ 40(116807)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지난 6일(토) 사할린한국교육원 개원 25주년 기념 <김치축제>가 펼쳐졌다. (관련기사 3면) (이예식 기자 촬영)

한민족 전통 씨름, 사할린에 정착

지난 10일(수) 유즈노사할린스크 메가팔라스호텔 연회장에서 사할린의 씨름 활성화에 대한 5각 양해각서 체결식이 있었다. 이날 양해각서에 한국 인천광역시씨름협회 한대호 회장, 사할린주 스포츠관광청년정책부 예고르 움노브 부장관, 사할린주한인협회 박순옥 회장, <그린 솔류시온(메가팔라스 호텔)>회사 안화자 대표이사, 사할린주 씨름협회 존 알렉세이 회장이 서명했다.

"사할린에 와서 우리 동포들은 30년 동안 씨름을 해왔다고 하여 감동을 받고 기쁩니다. 씨름은 5천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전통 스포츠인 씨름을 러시아 사할린에 알려줄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현재 씨름은 전세계 34개국에서 하고 있고, 국제경기도 하면서 씨름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지원하는 스포츠으로서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라고 한대호 회장은 강조했다.

이날 한 회장은 앞으로 사할린에서 한국의 씨름 훈련단과 사범들과 선수들과 함께 활발한 교류를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답사를 한 움노브 스포츠부 차관은 "지리적 위치로 봐서라도 지역적으로 동양 무술이 인기가 많다"며 "오늘 같은 양해각서는 체육과 건강한 삶을 연결시킬 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한국 간 국제친선교류의 발전에 도움을 줄 것이다. 우리는 경기 조직진행과 기술, 경험 공유와 사범교류 등에 협력하겠다. 앞으로 사할린에서 대규모 씨름경기도 치를 수 있을 거라 본다."고 했다.

박순옥 주한인협회 회장은 해마다



진행되는 대규모 광복절 기념행사에서는 씨름 경기를 치른다며 이 양해각서를 통해 사할린-한국 국제스포츠교류를 비롯한 양지역의 활발한 교류를 기대했다.

사할린주 씨름협회 후원으로 나선 <그린 솔류시온>회사 안화자 대표이사도 사할린 씨름협회를 계속 후원하고 발전을 지원하며 앞으로 씨름이 사할린에 잘 정착하길 기원했다.

이날 인천씨름협회 회장은 씨름이 사할린에 정착하도록 돕고 있는 사할린 씨름협회 존 알렉세이 회장, 사할린주 한인회 박순옥 회장, 주스포츠부 움노브 부장관, <그린 솔류시온>회사 안화자 대표이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고 감사패를 전달했다. 사할린 측에서도 준비한 감사장을 한 회장에게 수여했다. 또한 한 회장은 사할린씨름협회에 경기용, 연습용 청·홍색의 살바, 경기용 짧은 반바지, 인천씨름협회의 연습용 티셔츠 등을 기증하기도 했다.

한편 10월 9일-11일 2박3일 일정으로 사할린을 다녀간 한대호 인천광역시씨름협회 회장은 사할린스포츠시설과 동포들이 운영하는 여러 무술학교를 다녔었다고 전해졌다.

(취재: 배순신/글, 이예식/사진)

한국어 교사를 위한 연수와 세미나 개최

10월 15일부터 20일까지 사할린 국립대학교 인문·역사·동양학대학(학장 임 엘비라)에서 한국어 교사 연수와 학술세미나가 개최된다. 행사 주최 측은 사할린국립대 한국어과와 외국어과이며 후원은 사할린한국교육원이 한다고 전해졌다.

이번 연수의 주제는 <교사의 전문적 기준 도입과 관련한 한국어 교육>이며 학술세미나는 <한국어 교육에서 예술적 창의력, 언어지식과 문화유산의 융합>을 주제로 삼았다. 연수 참가자들은 교사의 자질향상에 따른 수료증을 받는다고 전해졌다.

새고려신문

2019 신문주문 계속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19년 상반기 구독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고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6개월 구독료는 492루블리 84 코페이카입니다. 신문은 사할린 모든 우체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문 인덱스는 53740입니다. (본사 편집부)



단신

사할린 여성들, 유방 검진에 초대

매년 10월에는 세계보건기구가 주도하는 유방암 예방 및 퇴치를 위한 세계적 행사인 '분홍리본' (유방암의 국제적 상징) 행사가 펼쳐진다. 최근에 사할린의 보건기관들도 유방질환 검진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사할린주 보건소들에서는 10월 13일(토) 여성들을 위한 무료 검진이 진행된다. 이들은 내과, 유방종양 상담과 초음파, 유방 조영술, 엑스트레이 검사 등을 받게 된다. 희망자들은 사전 등록 없이도 의료기관들에서 검진이 가능하다. 진료 지역인 아니와, 돌린스크, 코르사코브, 티몹스코예, 우글레고르스크, 홈스크 진료소(폴리클리닉)에서 여성들을 초대한다.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는 제2, 제4, 제6 진료소와 상담진단센터에서 오전에 검진이 이루어진다. 진료 희망자는 여권, 국민건강보험 증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고 주보건부 홍보실이 전했다.

YTN 한국방송사 제작팀, 사할린 동포 취재

한국방송국 YTN 글로벌센터의 제작팀(피디 김이향)이 10월 9일부터 20일까지 사할린에서 취재한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제작팀은 <사할린 동포 1세의 기록>과 <이산의 섬, 사할린> 두 가지 다큐멘터리를 기획으로 세웠다.

이를 위해 이들은 비코브,우글레고르스크, 유즈노사할린스크, 홈스크, 아니와, 코르사코브 등지를 찾아 1세, 2세 한인동포들을 취재할 예정이다.

김이향 피디에 따르면 <사할린 동포 1세의 기록>다큐에서는 1세 분들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게 목적이며, 그 분들의 목소리를 통해 '사할린 동포'의 역사를 더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또 하나의 목적인다고 한다.

<이산의 섬, 사할린> 다큐에서는 사할린으로 떠난 동포들의 이중, 삼중의 이산의 경험을 담고, 강제징용으로 인한 이산뿐만 아니라 이중징용, 북한으로의 귀국, 그리고 한국으로의 영주귀국으로 인해 가족이 또다시 이별해야 했던 역사를 조명하고, 그 고난 속에서 가족을 찾거나 만나려고 동포 분들이 스스로 노력해 온 역사를 한국사회에 알리고자 한다는 취지를 전했다.

사할린, <러시아 미식 관광>부문에서 2등

가장 인기있는 관광지들에 대한 2018년 내셔널지오그래픽 여행자들의 시상(National Geographic Traveler Awards 2018)이 개최돼 온라인상 투표가 이뤄진 가운데 지난 10월 5일에 마감되었다. 시상 25개 부문 중 <러시아 미식 관광>부문에서 사할린이 2등(19%)을 했다고 전해졌다. 1등은 타타르공화국(40%), 3등은 블라지미르주(15%)가 차지했다.

다른 부문에서 러시아 휴양지로서 5개 지역 중 크라스노다르스크 변경지역이 최우승을 차지하고, <러시아 관광여행>부문에서는 레닌그라드주(42%), <러시아 경제적 휴양>부문에서는 칼리닌그라드(42%), <러시아 모험 여행>부문에서는 캅차트카주(25%)가 차지했다고 전해졌다.

"사할린에 직접 와서 무엇인가를 느껴보고 싶었습니다"

허진원 한국 극작가와의 인터뷰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지난 9월 1일부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국제교류 사업으로 사할린에 허진원 극작가가 3개월 파견되었다. 본사 배순신 기자는 사할린 한인들의 삶에 관심이 많은 허진원 작가에게 몇가지 질문을 던졌다.

-사할린 동포들에게 작가님을 소개하고 싶어서 부탁드립니다. 선생님은 원래 작가가 되고 싶었습니다까? 작가로서 주로 어떤 작품을 씁니까?

- 유년시절 제 꿈은 <탐험가>였습니다. 코를 찔찔 흘리면서도 어딘가로 무작정 떠나 새로운 세계와 맞닥뜨리고 싶어했어요. 그런 맹랑한 생각 때문이었는지, '책읽기'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를 읽거나, 중학교 2학년 때에는 알베르 까뮈의 <이방인>, 카프카의 <변신> <성> 등을 인상적으로 읽었습니다. 그 뒤 그 흐름으로 더듬더듬 도스토예프스키, 체홉, 유진 오닐과 같은 거장의 작품들을 접하며, '음, 시대를 초월한 예술 작품 속에는 이해 불가결한 인간의 심리들이 바탕을 이루고 있군' 이렇게 깨달았어야 하는데요. 여기에서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런 글을 쓰기 위해 노력을 해야 했던 건데, 고백하자면 오히려 전 그간 아무 대책도 없이 이해 불가결한 행동들을 하며 인생을 허비하진 않았나 싶네요.

사실 미련스러운 정도로 작가에 대한 꿈을 놓지 않은 채 살아온 셈인데요. 책을

허진원 극작가

1974년 부안 출생.

서울예술대학에서 극작을 전공했다. 프랑스 유학 중 집필한 희곡 <땃>이 뒤늦게 한국일보 신춘문예를 통해 발표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전국 연극·뮤지컬 대본 공모 최우수상 수상작 <사랑, 그것은> 및 창작산실 대본 공모 우수상 수상작 <늑단> 등을 집필했다. 2017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 창작산실 '올해의 레퍼토리 선정작'이었던 뮤지컬 <마이 버킷 리스트>의 원안 및 작사가로 참여했으며, 작품집으로 허진원 희곡집 <미사여구없이> 등을 발표했다.



늘 곁에 쌓아둔 채, 책 속에 파묻혀 살다 보니, 어느새 한 편 한 편 작품을 발표하고 있는 극작가로 살고 있네요. 민망합니다.

- 본 지에 작가님 소개 보도에 선생님 작품이 해외에서도 무대에 올랐다는데요, 어떤 작품들인가요?

- 음, 쑥스러운 질문의 연속이네요. 지금 한국에서는 해외 진출 공연이 하나 둘 늘는 추세입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또는 콘텐츠진흥원 등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있다보니 우리 공연들이 해외 진출로 이어지는 경우입니다. 저 역시 이런 시스템 덕분에 제가 참여한 작품들이 해외에 소개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니 먼저 일본 도쿄에서 제 희곡을 올린 적이 있네요. <땃>이라는 연극이었습니다. 한국어로 올렸으면 싶었는데, 일본어로 번역이 되어 일본인 배우들이

올린 무대입니다. 현대인의 부조리한 어떤 면을 그집어 내기 위해 애를 썼던 작품입니다만, 지금은 그 결점들이 너무 제 눈에 잘 띄어, 저는 아예 다시 읽지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기회가 닿는다면 이 작품의 결점들을 줄이면서 좀 더 길게 대본을 빼 볼 생각입니다. 이 작품이 한국에서는 대학이나 소극장 등지에서 가끔 무대에 오르네요. 희극입니다, 코메디. 젊었을 때 프랑스 파리에서 지낸 적이 있어요. 사르트르의 <구토>를 원서로 읽어보겠다고 혼자 끙끙거리며 사전 뒤적거리기 바쁠 때가 있었어요. 시간이 너무 걸리다보니 머리 식힐 겸, 몰리에르 작품에 도전했었는데요. 조금 속도를 내서 읽을 수 있겠더라고요. 시간이 조금 지나니 나아가 어떻게 잘하면 코메디는 한 번 써 볼 수 있겠나 싶더라고요. 그때 채 하루도 걸리지 않

고 집필한 작품이 나중에 등단(한국일보 신춘문예)으로 이어진 케이스입니다.

막상 등단한 뒤부터는 작업 의뢰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요. 원안 및 작사가로 참여한 뮤지컬의 경우, 일본 도쿄 및 중국 북경, 상해 등지에서 꾸준히 소개되고 있습니다. 제목은 <마이 버킷 리스트>. 감각적인 김혜성 작곡가와 부지런한 강병원 프로듀서를 만난 덕에 해외 진출이 이루어진 케이스입니다. 이달 19일부터 27일까지 상해에서 재공연이 있을 예정입니다. 한편, '즉흥'이라고, 무용을 기반으로 한 대한민국, 미국, 프랑스, 핀란드 등 다국적 멤버들로 구성된 팀입니다. 저는 텍스트에 참여했어요. 프랑스 푸아티에 등지에서 팀이 공연을 올렸어요. 'a chacun ses utopies'라는 행사 초청으로 제목은 <두 번째 시도, going ahead / ing 즉흥 그룹>. 굉장히 가슴 아픈 이야기를 담았던 작품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작품을 통해 '움직임'에 대해 '무용'에 대해 본격적으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김삼진 안무가와의 인연이 시작되었던 작품으로 그 뒤 매년 새로운 실험들에 참여하며, 나아가 우리 춤, 우리 몸짓 등의 매력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한국 무용에 푹 빠져 있습니다.

- 프랑스 유학도 하셔서 사할린의 서양 문화는 낯설지 아닌 것 같습니다.

- 학위 과정에 목을 매지 않았던 인생인지라, 프랑스 유학이라기보다는 프랑스에서의 삶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아무래도 스트라스부르와 파리에서 아내와 함께 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서양 문화에 대해 낯설어 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7면에 계속)

이모저모

사할린 주민들 <경제학 받아쓰기>에 참여

러시아 83개 지역의 학생과 대학생들을 비롯한 사할린국립종합대학 학생들이 10월 4일 <경제학 받아쓰기> 교육행사에 참가했다.

받아쓰기의 주된 목적은 젊은 러시아인들에게 경제학과 실질적인 경제적 현실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켜 이 분야에서 국민적 지식 수준을 점검하고 향상시키는 데에 있다.

<러시아 자유 경제회> 부회장인 드미트리이 소로킨을 위원장으로 하여 교육방법위원회가 작성한 받아쓰기의 주요 문제들은 거시·미시 경제학, 현대 러시아 경제적 구조와 더불어 순수 실질적인 경제활동 - 예를 들어 은행에서 계좌 개설과 대출 받기 등 - 에 관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경제사상의 역사와 문학에 관한 문제도 있었다. 현재 러시아 주민들과 특히 청년 세대가 국민경제 분야를 잘 알고, 경제적 해결책을 받아들여야 하는 만큼 주어진 답이 밝혀줄 것이다.

받아쓰기 결과를 토대로 경제교육에서 어떤 측면을 고려해야 하는지, 학교와 대학들의 경제학 프로그램 구성자들이 주목해야 할 점들에 대한 실질적 상담을 조성할 계획이다.

사할린지역에서는 주 교육부와 사할린국립종합대학이 행사를 주최했다.

제1회 <경제 받아쓰기>는 2017년에 진행되어 80개 지역, 638곳의 행사장에서 5만9천 명이 행사에 참가했다고 사할린국립종합대학 홍보실이 전했다.

Сахалинцы присоединились к "Экономическому диктанту"

Вместе со школьниками и студентами из 83 регионов России учащиеся Сахалин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4 октября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в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й акции "Экономический диктант".

Главная цель диктанта — пробудить у молодых россиян интерес к экономической науке и актуальной экономической повестке, определить и повысить уровень грамотности населения в этой сфере.

Основные вопросы диктанта, разработанные методической комиссией во главе с вице-президентом "Вольн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общества России" Дмитрием Сорокиным, касались макро- и микроэкономики, экономических реалий современной России, а также чисто практических дейст-

вий — например, таких как получение кредита или открытие вклада в банке. Также были задания на знание истории экономической мысли и литературы. Полученные ответы позволяют выявить, насколько сегодня население России, особенно молодые люди, которым только предстоит принимать экономические решения, осведомлено в сфере народного хозяйства.

По итогам диктанта будут сформулированы практические рекомендации о том, какие аспекты следует учесть в экономическом образовании, на что обратить внимание составителям школьных и вузовских программ по экономике.

Организаторами акции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выступили министерство образования области и Сахалин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Первый "Всероссийский экономический диктант" прошел в 2017 году, его написали более 59 тысяч участников на 638 площадках в 80 регионах,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СахГУ.

사할린주 9월 물가 상승률이 0.6%에 도달

사할린주에서 9월 소비자가격 종합지수는 100.6% (연초부터 101.5%)에 해당했다. 물가상승률은 한 달 만에 식품류가 0.6% (연초부터 1.3%), 비식품류는 0.4% (연초부터 1.2%), 서비스업은 0.9% (연초부터 2.2%)가 상승했다.

채소와 과일 가격의 하락 또는 상승은 이전의 식품류 가격변동에 영향을 준다. 양배추 가격은 13.7%, 포도는 6.2%, 감자는 5.5%, 사과, 마늘, 당근, 토마토는 0.7~2.6%로 하락했고 이에 맞서 가격이 상승한 채소는 오이 7.3%, 양파 6.0%, 레몬 5.8%, 오렌지 4.0%, 비트(사탕무)는 0.2% 올랐다.

한 달 만에 식품 평균가격은 1킬로당 양배추가 31루블리, 포도는 309루블리, 감자는 37.58루블리, 사과는 167.07루블리, 마늘은 197.88루블리, 당근은 56.24루블리, 토마토는 115.69루블리, 오이는 87.06루블리, 양파는 43.39루블리, 레몬은 220.85루블리, 오렌지는 141.65루블리, 비트(사탕무)는 45.62루블리에 달했다.

곡물 평균가격은 1킬로당 백미가 73.66루블리, 기장쌀은 57.14루블리, 메밀은 48.38루블리에 달했다.

동시에 육류가격은 상승하여 돈육은 2.6%, 냉동생선(연어류 제외)은 2.5%, 가금류는 2.4%, 우유와 유제품, 버터, 냉동 통생선, 훈제류, 다진 고기는 0.5~1.1% 올랐다.

관찰된 공산품품의 가격은 승용차 타이어가 3.3%, 목재는 2.6%, 곡산 담배는 1.8% 올랐고, 건축자재

(리놀륨, 바닥재, 유럽식 지붕마감재)는 1.9~3.8%, 세제는 0.6% 상승했다.

지역 유류 생산시장에서 경유와 휘발유 평균가격은 0.4~0.5% 인상한 것으로 기록되었다. 사할린주에서 2018년 9월 기준으로 경유의 평균가격은 1리터에 50.65루블리, АИ-92 휘발유는 1리터에 45.67루블리, АИ-95는 47.47 루블리, АИ-98은 50.65루블리에 해당했다. 신학기가 시작되는 9월에는 전례대로 교육분야 서비스 비용이 인상된다. 따라서 고등전문교육기관 등록금은 13.2%, 중등전문교육기관은 48%, 학령 전 아동 보조교육비는 1.3%, 대학 기숙사비는 0.4% 올랐다.

종목별 의약품 가격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할린주에서 9월 말에 한 달 기준으로 최저 식품 소비의 평균가격은 5498.97루블리에 달해 이는 전월에 비해 0.3%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식품 소비가격은 5359.72루블리(1달 만에 0.2% 상승),

코르사코브지역은 5411.09 루블리(한 달 만에 1.4% 하락), 포로나이스크지역은 5212.8루블리(1달 만에 0.6% 상승), 오히려 6268.69루블리(1달 만에 1.1% 하락)에 달했다고 사할린 통계국 홍보실이 전했다.

В сентябре инфляция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оставила 0,6%

Сводный индекс потребительских цен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сентябре составил 100,6% (с начала года — 101,5%). Продовольственные товары за месяц подорожали на 0,6% (с начала года — на 1,3%), непродовольственные товары — на 0,4% (с начала года — на 1,2%), услуги — на 0,9% (с начала года — на 2,2%).

Так, цены на белокочанную капусту снизились на 12,7%, на виноград — на 6,2%, на картофель — на 5,5%, на яблоки, чеснок, морковь, помидоры — на 0,7-2,6%.

Вместе с тем на 7,3% стали дороже свежие огурцы, на 6,0% — репчатый лук, на 5,8% — лимоны, на 4,0% — апельсины, на 0,2% — свёкла.

Средняя цена белокочанной капусты за месяц составила около 31 рубля за кг, винограда — около 309 рублей, картофеля — 37,58 рубля, яблок — 167,07 рубля, чеснока — 197,88 рубля, моркови — 56,24 рубля, помидоров — 115,69 рубля, огурцов — 87,06 рубля, лука репчатого — 43,39 рубля, лимонов — 220,85 рубля, апельсинов — 141,65 рубля, свёклы — 45,62 рубля за кг. Средняя цена риса составляла 73,66 рубля за кг, пшеница — 57,14 рубля, гречневой крупы — 48,38 рубля за кг.

(8면에 계속)

사할린한국교육원 25주년 기념 <김치축제> 성공

이미 홍보된 바와 같이 지난 6일(토) 사할린한국교육원 25주년 기념 <김치>축제가 개최되었다. 이날 관객들을 환영한 사할린한국교육원 김주환 원장은 축제 참가자들에게 김치 담그기가 좋은 체험이 되길 기원했다.

김치를 맛있게 담그는 법은 교육원 요리교실 강사 허은설현 선생의 지도 아래 진행되었다. 앞치마를 입고 장갑을 낀 약 40명의 참가자들은 김치 만들기에 나섰다. 참가자 중에는 동포 외에도 러시아인이 많았고 남성들도 있었다.

이번 행사를 위해 주최 측에서 180 킬로그램의 배추와 40킬로그램의 무우를 비롯해 배, 밤, 파, 말린 고추 등, 맛을 낼 재료들을 준비했다. 시간상 배추는 미리 절여져 있었고 양념도 준비되어 있었다. 배추 절이는 법과 양념하는 절차 등 정보는 실내에 있는 게시판에서 볼 수 있었다.

허 강사의 진행으로 참가자들은 우선 백김치를 만들고 김치 속을 준비해 배추에 양념을 발라 김치를 만들었다. 참가자들은 이날 직접 만든 김치를 몇 포기씩 집에 가져갈 수 있었다.

작업을 마친 참가자들은 한국교육원에서 차려진 한식 다과상을 맛보았다.

진지하게 김치 만드는 법을 배우는 사람들의 기분도 아주 좋아보였다. 필자도 이날 한국식 김치 만들기 체험한 한사람으로서 이와 같은 행사들이 한민족 문화를 전파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느꼈다.

한편 12월 10일 개원 25주년을 맞이하는 교육원은 태권도 축제와 기념식을 거행할 예정이다.

(취재: 글/배순신, 사진/이예식)

사할린동포 잊지 않도록 제12회 대구의 밤 개최

2018년 10월 4일(목) 러시아 사할린주 한인 협회(회장 박순옥), 민족통일대구시청년협의회(회장 하태균) 주최 사할린동포와 함께하는 제12회 대구의 밤 행사가 러시아 사할린주 한인문화센터에서 개최되었다. 행사는 감사장 전달, 러시아 전통 무용 공연, 사할린주 동포 공연, 어르신 식사 대접 순으로 이루어졌다.

행사는 사할린주 한인협회 청년부 박 알렉산드르와 김 카리나의 진행으로 이루어졌으며, 사할린주 동포 어르신들이 만들어 가는 무대였다. <아리랑>공연단의 아리랑과 무용 등은 이날 자리에 참석한 모두에게 큰 감동을 안겼다. 특히나 사할린주 한인여성협회 김웨철 회장의 구슬픈 아리랑 노래와 '아리랑' 무용단의 무용은 많은 이들의 눈시울을 붉히게 만들었다.

(7면에 계속)

(전호의 계속)
IV. 고려인과 조선족은 누구인가?-동포인가, 외국인인가?
(표 5)

김성혜(가명: 사할린 강제징용 피해자 후손); 김성혜의 아버지는 1910년에, 그녀의 어머니는 1924년에 경상남도에서 태어나, 일제강점기 사할린으로 강제동원되었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1954년에 그녀는 러시아에서 태어났다. (1950년대 초반부터 사할린에서 '임시신분증'이 발급되었으며, 1955년부터 '무국적자 신분증'이 발급되었다; 2014. 1. 김복근씨 증언, 1959년 당시 무국적자가 49%(약 2만명), 1970년이 되면 7,600여명으로 감소(1세를 사망 원인; 한인보 실태조사 보고서 2011년); 일다, 2014. 7. 16.) 그녀의 아버지가 한국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을 염려하여 러시아 국적을 취득하지 말라는 뜻을 존중하여 무국적 상태로 사할린에서 거주하다, 과거사청산위원회 소속변호사들과 윤지영 변호사가 그녀를 대리하여 대한민국을 상대로 대한민국 국민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소를 제기한지 2년만에 서울행정법원에서 승소하였다(2012구합26159). (이 소송은 지구촌동포연대(KIN)와 민주시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윤지영 변호사가 진행한 사건; 2014. 6. 19. 2012구합26159, “사할린 징용 피해자 후손, 국적 확인소송 첫 승소”, <<http://withgonggam.tistory.com/1443>>, ; '무국적 사할린 동포의 국적확인 소송판결의 의미', OK Times, 세계한인신문, 2014. 6. 26.; 검색일; 2017. 11. 30.)

사할린에서 무국적자로 살아온 김씨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방법을 찾지 못하다가 사할린 희망캠페인단'의 조력을 받아 2012년 8월에야 뒤늦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다. 김씨는 소송에서 "사할린으로 징용된 사람들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구 소련의 강제억류 정책 탓에 귀국하지 못했다"며 "혈통주의를 채택한 국내법에 따르면 사할린 한인은 애당초 국적을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대한민국 국적자(재외국민)"라고 주장했다. (http://www.lawnb.com/news/contents_view.asp?cid=5054C665BACD455B9BA7BABB931C62D1; 사할린 징용 피해자 후손, 국적 확인소송 첫 승소, 출처, 연합뉴스, 2014. 6. 19.)

또한 동 소장에서, "남조선과도정부법률 제11호 '국적에 관한 임시조례'와 이를 승계한 국적법을 보면, 조선을 국적으로 했던 자는 국적법 제정과 함께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것"이라 주장했다.(또한 민변에서는, 대한민국 국적이 없다는 이유로 위로금 지급을 거절당한 이모씨 등 사할린 동포 37명을 대리해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자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 지원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하는 위로금지급각하결정 취소소송(2012구합

사할린 한인, 그들은 누구인가

최경옥(영산대학교 법학과 초빙교수)

25965)도 냈다.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자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로금 지급 조건으로 '대한민국'을 요구하여, 사할린 동포들의 위로금 지급 신청을 원천봉쇄하였다. 민변에 따르면 2012년 현재 사할린주 한인이산협회가 밝힌 사할린 거주 한인 1세는 1,038명에 이른다고 한다. 윤지영 변호사는 이러한 위로금지급방법이 불합리하다고 보고, "국적확인소송과 위로금지급소송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여 특별법의 위헌성을 다투겠다고 하였다-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 다목 등 위헌소원 -2015. 12. 23. 2013헌바11-. ; legalinsight 2012. 8. 7. 송득범 기자.)

한편, 위 사건에서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박연옥 부장판사)는 “국민은 귀화 등 후천적인 사유에 의한 국적취득이 아닌 한 헌법과 국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생과 동시에 당연히 국적을 취득한다. 따라서 헌법과 국적법이 정하고 있는 국적취득 요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대한민국국민에 해당하는 것이지, 반드시 행정부가 그를 국민으로 판정하여야만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서울행정법원은 “헌법과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지위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헌법 전문, 제2조 제2항 (대한민국 헌법 제2조;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의무 및 기본권 보장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고 하였다.

이번 판결은 무국적 사할린 동포의 국적이 대한민국임을 확인하는 최초의 판결로서 그 의미가 있다하겠다. 국적 승계의 법령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6) (이 표는, 최경옥, 중국동포와 한국국적 취득의 문제점, 일감법학 제29호, 2014. 10.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에 실려 있음.)

대한민국 국적 승계의 근거 법령 (2006. 3. 30. 2003헌마806, 조대현 재판관의 견해)
1. 남조선과도정부 법률 제11호(국적에 관한 임시조례) 제2조; '조선인을 부친으로 하여 출생한 자 등은 조선의 국적을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1948. 7. 17.) 제3조; 대한민국의 국민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제100조; 현행 법령은 이 헌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효력을 가진다.

2. 일제가 대한제국을 강제병합한 후 칙령 제318호로 대한제국을 조선이라 칭함-대만인과 사할린인에게는 일본 국적법을 적용하면서도 조선인에게는 일본 국적법을 적용하지 않았으며, 일제시대 민적법에 따른 민적이나 조선호적령에 따른 조선 호적은 일본의 호적법에 따른 일본호적과 준별하였으며, 조선호적과 일본호적과의 교류는 혼인,이혼,입양,인지 등 특별한 신분변동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되었으며, 그 결과 일제시대에는 호적을 기준으로 일본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진 사람, 조선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진 사람을 법적으로 구별

3. 일제는 1941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만주 거주 무호적 조선인에 대하여 간단한 절차로 적을 취득하게 하여 재만조선인(在滿朝鮮人)으로 하는 취적사업을 하였으며, 조선호적령은 일제 패망 이후에도 재조선미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21호에 의하여 효력이 지속되었으며, 임시조례 제5조는 일본호적을 취득한 혈통상 조선인이 일본호적에서 이탈하면 조선 국적을 소급적으로 회복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었으며,호적의 임시조례에 관한 규정(1948. 4.1. 남조선과도정부 법령 제179호)에 의하여 38선 이북에 본적을 두고 38선 이남에 거주하는 자의 신고를 받아 38선 이북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서도 가호적이 편제되었다.

이러한 모든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위 임시조례에서 말하는 '조선인'이란 일제시대에 조선인으로서의 법적지위를 가졌던 사람, 즉 조선호적에 등재되었거나 등재될 사람을 의미한다고 본다.

4. 제헌헌법 전문에서,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민국은 기미 3.1운 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헌법인 대한민국임시헌법(1919. 9. 11.) 제1조에는 '대한민국은 대한인민으로 조직함'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대한민국임시헌장(1944. 4. 22.) 제3조에서는, '대한민국의 인민은 원칙상 한국 민족으로 함'

5. 이상으로 종합하여 보면, 위 임시조례 제2조의 내용은 제헌헌법에 저촉되지 아니한 다고 할 것이므로, 1948. 5. 11. 임시조례에 의하여 조선의 국적을 부여받은 조선인 및 그 후손들은 1948. 7. 17. 제헌헌법 제3조, 제100조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최초의 대한민국 국민은 임시조례상의 조선인, 즉 조선호적 입적자 또는 입적대상자라고 할 것이다.

이상에서 위 5의 견해가 타당하다고 본다.

(계속)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В СахГУ отпраздновали День ХАНГЫЛЬ

9 октября – день корейского алфавита ХАНГЫЛЬ. В этот день в СахГУ прошел мастер-класс по каллиграфии: корейский алфавит хангыль. Организатором мероприятия стал Институт филологии, истории и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при поддержке Всемирного фонда корейских женщин.

На праздник собрались студенты разных направлений Института филологии, истории и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СахГУ. А также студенты по направлению: туризм Института права, экономики и управления СахГУ, которые изучают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как второй иностранный.

Сначала преподаватели кафедры корейской филологии Эльвира Хамоковна Лим и Инна Владимировна Корнеева рассказали об истории корейской письменности. Затем был показан видеофильм про хангыль, просмотрев который, стало понятно, кто создал, когда и насколько он распространен в мире. Преподаватель Инна Ериевна Че рассказала об основах каллиграфического письма. А затем начались практические занятия. За короткое время участники под чутким руководством преподавателей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Инны Че и Карины Де освоили технику письма корейских букв, смогли сделать росписи на веерах из корейской традиционной бумаги ханджи.

Все участники были награждены дипломами за участие в мастер-классе. А самое главное – на память им остались их работы.

(Информация и фото предоставлены СахГУ)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будет развиваться корейская национальная борьба

Пятисторонний меморандум о популяризации этого вида спорта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был подписан 10 октябр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оглашение заключили президент федерации борьбы ссирым города Инчхон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Хан Де Хо, заместитель министра спорта, туризма и молодежной политики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Егор Умнов, президент региональн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Пак Сун Ок, а также глава Сахалин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циональной корейской борьбы ссирым Алексей Чун и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ООО «Грин Солюшн» Мега Палас Отель» Ан Хва Дя.

– Борьбе ссирым уже свыше пяти тысяч лет. Она популярна более чем в 30 странах мира. Я с большим удивлением и радостью узнал, что и на Сахалине тоже занимаются этим видом спорта, – сказал Хан Де Хо. – Я приложу максимум усилий для того, чтобы внести свой вклад в популяризацию национальной борьбы на острове. Мы планируем проводить здесь мастер-классы, совместные тренировки. Обязательно приедут тренеры из Кореи, чтобы поделиться не только оборудованием и формой, но и своими методиками, программами.

Егор Умнов в своем выступлении отметил, что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в силу его географического положения традиционно популярны все виды восточных единоборств.

– Подобные соглашения не только приобщают к физкульту-



ре и здоровому образу жизни, но и содействуют развитию международных дружественных связей между Россией и Кореей. Наша помощь будет заключаться в организации и проведении соревнований, обмене опытом и тренерскими кадрами. Возможно, что в будущем на Сахалине пройдет крупный международный турнир по национальной корейской борьбе ссирым, – отметил замминистра спорта области.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уже есть опыт проведения соревнований по этому виду спорта.

– Впервые я участвовал в турнире по ссирым еще в 1964 году в селе Сокол. Мне тогда было десять лет, – поделился известный сахалинский тренер по греко-римской борьбе Виктор Ци. – С каждым годом в турнирах принимали участие все больше спортсменов. Несколько лет назад на первые областные соревнования приехали борцы из семи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й.

Участники подписания меморандума выразили надежду на то, что этот шаг привлечет большое внимание к национальной борьбе ссирым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По словам президента Сахалин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циональной корейской борьбы Алексея Чуна, это культурное, традиционное спортивное наследие, которое нужно сохранить для будущих поколений.

Добавим, что поединки в ссирым проходят на небольшой круглой арене, наполненной песком. Главная цель схватки – опрокинуть соперника на песок, используя силу рук, ног и спины. Раньше эта борьба была исключительно мужским занятием, однако сейчас национальной борьбой занимаются и женщины. Победа достигается с помощью отточенной техники, но ее применение не наносит вреда участникам поединка, а возможность травм сведена к минимуму.

(Пресс-служба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Фото: Ли Е Сик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1-е полугодие 2019 года.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492 руб. 84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53740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러시아에 사시는 분들은 이 계좌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2810750340100530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608, БИК: 040813608.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реклама

В рамках реализации соци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И поколений связь, и нить традиций»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2018 г.

ЯРМАРКА МАСТЕРОВ

декоративно-прикладного искусства Кореи
на Сахалине

Приглашаем всех жителей и гостей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20 октября 2018 г. с 14:00 до 16:00

Адрес: пр. Мира, 83 а, Корейский культурный центр (актовый зал)

В программу ярмарки входят мастер-классы:

- каллиграфия: корейский алфавит хангыль (роспись на веере);
- традиционная бумага ханджи (изготовление бумажного фонарика);
- традиционная бумага ханджи (изготовление шкатулки);
- традиционный фонарик чхонсачхорон;
- женское украшение норигэ;
- роспись по ткани (сумка с изображением традиционных игр);
- оригами (открытки на традиционную тематику);
- традиционные корейские инструменты;
- корейский национальный костюм ханбок;
- национальный спорт тхэквондо;
- современные корейские танцы K-POP



ГУБЕРНАТОР И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РОО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САХАЛИН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В РК отметили День письменности Хангыль

9 октября жители РК отметили очередной День корейской письменности Хангыль, созданной 572 года назад. Праздничная церемония состоялась на сеульской площади Кванхвамун. В ней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1.200 человек, в том числе премьер-министр Ли Нак Ён, министр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и безопасности Ким Бу Гём, культурные деятели, внёсшие вклад в развитие корейской письменност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профиль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и обычные граждане. Ли Нак Ён заявил, что в мире не так много народов, которые имеют собственный язык и письменность, поэтому Хангыль является достоянием не только для корейской нации, но и для всего человечества. Он указал на то, что в течение 70 лет после раскола страны в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появились многочисленные различия. На этом фоне в 2005 году началась совместная работа над созданием единого большого словаря, который, как ожидается, будет завершён лингвистами обеих Корей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Кроме того, в Национальном музее Хангыля был организован тематический фестиваль, в городе Ёчжу провинции Кёнгидо - культурный фестиваль в честь короля Сэчжона Великого, который считается автором корейской письменности. Мероприятие приурочено к 600-летию его вступления на трон. В 1997 году Хангыль вошёл в список Всемирного культурного наследия ЮНЕСКО и был назван самой логичной и научной системой письменности в мире.

Заместители глав МИД России, КНДР и Китая провели консультации в Москве

9 октября в Москве состоялись трёхсторонние российско-северокорейско-китайские консультации. Заместители министров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трёх стран Игорь Моргулов, Чхве Сон Хи и Кун Сюанью в течение трёх часов обсуждали важные региональные проблемы, включая вопросы денуклеаризации и установления мира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Замглавы российского МИД Игорь Моргулов оценил консультации как «весьма успешные». Отвечая на вопрос корреспондента РИА Новости, он отметил, что их участники обсудили «возможность скоординированных действий по тем направлениям, где подходы трёх стран совпадают». Моргулов напомнил, что «создание механизма мира и безопасности в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и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невозможно без участия всех заинтересованных стран».

Объединённая команда Юга и Севера по плаванию завоевала бронзу

8 октября в Джакарте первая объединённая команда Юга и Севера в комплексном плавании завоевала бронзу на Азиатских играх среди спортсменов с ограниченны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Мужская команда завершила дистанцию в эстафете фристайлом на 400 метров третьей после Китая и Японии со временем 4 минуты 24 секунды. Между тем, после окончания заплыва судьи дисквалифицировали японских спортсменов за нарушение правил старта, что автоматически перевело команду Юга и Севера на второе место. Но после просмотра видео-записи было решено отменить дисквалификацию. Для объединённой команды РК и КНДР это первая медаль на международном спортивном мероприятии среди людей с ограниченны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Между тем, оргкомитет соревнований сообщил о том, что согласно установленным правилам спортсмены Юга и Севера не могут вместе принимать участие в церемонии награждения. Указывается, что в квалификационных заплывах участвовали, как южнокорейские, так и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е спортсмены, но в финале выступали только пловцы из РК, что было обусловлено их более высоки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То есть, из семи членов команды в церемонии могут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только четыре южнокорейца, участвовавших в финале. Национальный паралимпийский комитет Кореи обратился к оргкомитету соревнований и к Азиатскому паралимпийскому комитету с просьбой принять во внимание особые условия объединённой команды Юга и Севера и разрешить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церемонии либо всем членам сборной по плаванию, либо четырём из них - по два спортсмена от РК и КНДР.

Лидер КНДР пригласил инспекторов из США подтвердить демонтаж ядерного полигона в Пхунгери

Лидер КНДР Ким Чен Ын пригласил американских инспекторов посетить ядерный полигон в Пхунгери, чтобы подтвердить его демонтаж. Об этом говорится в опубликованном в воскресенье заявлении госдепартамента США. В нём также отмечается, что госсекретарь США Майкл Помпео и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й лидер обсудили проведение второго американско-северокорейского саммита. Беседа продолжалась три часа, включая полуторачасовой обед. Это был четвёртый по счёту визит госсекретаря США в КНДР.

(RKI)

Мун Чжэ Ин заявил о визите Ким Чен Ына в Россию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Президент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РК) Мун Чжэ Ин заявил, что лидер КНДР Ким Чен Ын скоро посетит Россию, а в Пхеньян прибудет председатель КНР Си Цзиньпин. Мун также сообщил о возможности и японо-северокорейского саммита. Свои заявления президент РК Мун Чжэ Ин сделал в ходе состоявшегося 8 октября заседания Госсовета РК, где он председательствовал.

"Ожидается, что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Ким Чен Ын посетит Россию, а в Пхеньян с визитом приедет китайский лидер Си Цзиньпин. Есть также вероятность, что состоится и саммит между Японие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ей", - заявил Мун, подчеркнув, что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формируется новый порядок".

Мун также рассказал подчиненным о состоявшейся у него встрече с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 секретарем США Майком Помпео, который на днях посетил Пхеньян. Помпео проинформировал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президента

об итогах поездки в КНДР, где он провел переговоры с Ким Чен Ыном. Мун отметил, что также, в скором будущем, должен состояться второй американско-северокорейский саммит.

Отметим, что слухи о возможной поездке Ким Чен Ына в РФ ходят уже давно.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официально пригласил Кима посетить Россию, это приглашение было принято председателем Госсовета КНДР. Позже высокопоставленные российские чиновники высказывали предположения, что этот саммит должен пройти до конца текущего года.

По поводу визита Си Цзиньпина в Северную Корею южнокорейские эксперты предположили, что высока вероятность визита уже в ноябре этого года. До этого Си и Ким встречались уже три раза, но все три раза это было в Китае, Си Цзиньпин пока не посещал Пхеньян.

Олег Кирьянов (РГ)

В Южной Корее откроют филиал известного пхеньянского ресторана

Администрация южнокорейской провинции Кёнги предложила и получила положительный ответ со стороны Пхеньяна на инициативу по открытию в Южной Корее первого полноценного филиала известного столичного ресторана КНДР "Оннюгван", холодная лапша из которого подавалась лидерам Юга и Севера во время межкорейских саммитов. Кроме того, Кёнги намерена развивать еще несколько направлений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 КНДР, символизируя тем самым возобновление после восьмилетнего перерыва различных программ межкорейского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Об этом заявил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овинции Кёнги, комментируя итоги своей недавней поездки в КНДР и результаты состоявшихся там переговоров.

Во главе столичной провинции Кёнги, которая со всех сторон окружает Сеул, и при этом граничит с КНДР, сейчас находятся люди, включая губернатора Ли Чжэ Мёна, настроенные на развитие связей с Северной Кореей. Потому неудивительно, что именно эта провинция развернула активную деятельность по налаживанию контактов с КНДР.

Большой прогресс на этом направлении был достигнут в ходе визита южнокорейских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в Пхеньян 4-6 октября, где они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в мероприятиях, посвященных 11-й годовщине совместной Межкорейской декларации от 4 октября 2007 г. Среди южан там был руководитель Департамента мира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овинции Кёнги Ли Хва Ён, который и вел переговоры с северокорейцами.

По словам Ли, провинция Кёнги и правительство КНДР договорились 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по шести направлениям. В частности, северокорейцы согласились направить свою делегацию для участия в "Международной конференции во

имя мира и процветания в АТР", которая пройдет 15 ноября этого года в городе Коян, что на территории провинции Кёнги.

Решено было также проводить по очереди на Юге и Севере совмест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в сфере спорта, культуры и туризма. В частности, спортсмены двух стран создадут единую команду для участия в международном турнире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х боксеров, который пройдет в 2019 г. Также достигнута договоренность о проведении "марафона мира", который стартует в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м городе Кэсон и закончится в южнокорейском Пхачжу.

Помимо этого провинция Кёнги и КНДР будут сотрудничать в области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животноводства, предотвращения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различных болезней и пр.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СМИ привлекла договоренность открыть в одном из городов провинции Кёнги полноценный филиал известного пхеньянского ресторана "Оннюгван".

Это заведение и до этого было весьма известно, но особую популярность приобрело, когда лидеры Юга и Севера в ходе недавних саммитов ели лапшу из этого ресторана, а также посетили его. "Северокорейская лапша", по словам маркетологов, стала пользоваться большим спросом в южнокорейских ресторанах, которые предлагали схожие блюда. Появление же филиала "Оннюгвана" позволит обычным южанам лично оценить "тот самый" вкус.

Для согласования деталей и подписания отдельных соглашений запланировано посещение КНДР высокопоставленными чиновниками из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овинции Кёнги, парламента провинции, а также главами отдельных районов.

Если это все удастся реализовать, то получится, что Юг и Север

возобновят различные проекты двусторонне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которые были прекращены восемь лет назад после введения Сеулом санкций против КНДР.

Вместе с тем эксперты предупреждают, что многие из этих начинаний обречены на серьезные трудности. Во-первых, все это нарушает уже упомянутые односторонние санкции Южной Кореи от 24 мая 2010 г., введенные против КНДР в ответ на гибель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корвета "Чхонан". Эти меры запрещают какое-либо нов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с Севером, а потому необходимо либо отменять санкции, что будет весьма непросто, либо искать пути для их законного обхода.

Кроме того, далеко не гарантирована помощь со стороны США, которые пока весьма негативно воспринимают межкорейское сближение. Благожелательность Вашингтона важна не только из общеполитических соображений и особого характера союзн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Южной Кореей и США, но и хотя бы потому, что контроль межкорейской границы со стороны Юга находится в руках сил ООН, которыми командует генерал США. В итоге американские военные могут запретить пересечение границы, что сразу же поставит крест на мероприятиях типа совместного марафона, а также иных проектах.

Тем не менее в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овинции Кёнги подчеркнули, что они смогут решить все проблемы, а также надеются на прорыв в отношениях КНДР с США в связи с ожидающимся очередным американско-северокорейским саммитом. Кроме того, подобный настрой на развитие связей с КНДР поддерживают в южнокорейском центральном руководстве, включая лично президента страны Мун Чжэ Ина.

Олег Кирьянов (РГ, Сеул)

BTS получила госнаграду за заслуги в области культуры

8 октября на заседании кабинета министров РК, проходившего под председательством президента Мун Чжэ Ина, было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наградить членов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бойз-бэнда «Бантхан Сонёндан» (BTS) орденом Хвагван за заслуги в области культуры. Орден за вклад в развитие



искусства и культуры в РК делится на пять степеней. Это Кымгван – золотой, Ынгван – серебряный, Погван – драгоценный, Оккван – нефритовый и Хвагван – цветочный. BTS стала первой молодежной поп-группой, получившей такую высокую награду. Правительство приняло такое решение в связи с признанием вклада участников группы в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 в мире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ной волны Халлю и корейской письменности Хангыль.

(KBS WORLD)

На Сахалине открылся Центр оказания услуг для бизнеса

Около 70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и муниципальных услуг могут получить представители бизнеса в новом офисе отделения МФЦ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На базе П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в торгово-деловом центре «Столица» размещены «окна» МФЦ, в которых осуществляется прием только юридических лиц и индивидуальных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это первое отделение многофункционального центра, которое открылось на площадке финансово-кредит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Появление подобных офисов по стране происходит по поручению Президента страны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 Такое соседство поможет нашим клиентам сэкономить самый главный ресурс — время, — отметила управляющая Южно-Сахалинским отделением ПАО «Сбербанк» Наталия Лейдман. — Больше нет нужды перемещаться из одного конца города в другой, чтобы решить организационные моменты, связанные с началом и развитием собственного дела. Теперь в одном месте сахалинские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и могут производить банковские операции и получать весь спектр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и муниципальных услуг.

Южно-Сахалинские компании, в которой работает Анна Новосельцева, нередко требуется посещение многофункционального центра.

— Сегодня, например, мы проводим сделку купли-продажи. Хочу отметить вежливое и внимательное обслуживание в недавно открывшемся отделении. К тому же, расположение нового офиса более удобно для нас. Раньше, когда ездили в МФЦ на улице Сахалинской, не раз попадали в пробки, — рассказала Анна Новосельцева.

В Центре оказания услуг для бизнеса юридические лица и индивидуальные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и могут получить весь перечень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и муниципальных услуг, а также услуги и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которые предоставляются в МФЦ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для данной категории заявителей. Есть возможность оформить свидетельство индивидуального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я, зарегистрировать собственность, получить сведения о формах финансовой поддержки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и получить около 70 других услуг.

— Особенно востребованы у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бизнеса получение выписок из Един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реестра недвижимости, а также вопросы получения разрешений, лицензий, субсидий, — отметил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островной области региона Сергей Попов. — Для улучшения инвестиционного климата на островах региональн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тремится создавать комфортные условия для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для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малого и среднего бизнеса. «Сбербанк» выступил нашим партнером в этом вопросе, и, надеюсь,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будет плодотворным.

В целях обслуживания юридических лиц и индивидуальных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без длительного ожидания в Центре оказания услуг для бизнеса организован прием документов на предоставление услуг по предварительной записи.

Центр оказания услуг для бизнеса открыт в часы работы «Сбербанка»: по будням, с 9 до 17.

Напомним, сегодня в островной области во всех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ях действуют 27 территориально обособленных структурных подразделений МФЦ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скверах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едложено создать «общественные зеленые фермы»

Территории, где жители близлежащих домов смогут высаживать растения по своему усмотрению, предусмотрены в эскизных проектах по благоустройству. Об этом говорили на первом заседании экспертно-консультационного совета по реализации приоритетного проекта по формированию комфортной городской среды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Участники совещания рассмотрели концептуальные решения по обновлению трёх скверов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 планировочном районе Ново-Александровске по улице 2-Хабаровская, юго-восточнее перекрестка проспекта Мира и улицы Сахалинской, а также в районе дома № 9А по Спортивному проезду.

Например, в сквере в Ново-Александровске предлагается создать несколько зон, включая площадки для отдыха, размещения тренажеров и проведения различных игр - стритбола, петанк (бросание шаров), а также места для детских развлечений. Для проведения мероприятий запланировано создание так называемой главной площади со скамейками, клумбами и амфитеатром. Такова примерная концепция организации пространства, которая будет дополнена с учетом мнений горожан. В частности, уже предложено предусмотреть больше парковочных мест на территории, прилегающей к скверу.

— Особенностью обновленного сквера могут стать «общественные зеленые фермы». Это оформленные зоны, выделенные для работы, где жители могут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высаживать растения: цветы, кустарники и даже овощи, — отметил начальник проектного отдела МКП «Горархитектура»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Ярослав Тюняев. — Эта идея будет обсуждаться с жителями, если они ее

поддержат, то мы внесем разработку в проект.

— Наш совет должен стать центром компетенции, работа которого направлена на экспертную оценку проектов по благоустройству всех общественных пространств, создаваемых на терри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подчеркнул председатель экспертно-консультационного совета, руководитель регионального агентства архитектуры и градостроительства, главный архитектор области Семен Вялкин. — Мы начали с рассмотрения эскизов скверо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обсудив преобразования, которые запланированы на будущий год. Впоследствии предстоит оценить проекты и в других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ях области.

Напомним, экспертно-консультационные советы созданы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других российских регионах по поручению Министерства строительства и жилищно-коммунального хозяйств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х функция -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ая предварительная оценка проектов по благоустройству общественных пространств. К работе привлекаются архитекторы, представители региональных министерств, художники, строители и общественники.

Сахалинские гостиницы готовятся принять участников международных Игр «Дети Азии»

Эту тему обсудили на заседании координационного совета в министерстве торговли и продовольств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совещании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руководители предприятий гостиничного хозяйств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Руководителям гостиничных комплексов предложено принять активное участие в решении вопросов, связанных с организацией проживания и питания участников I зимних Международных спортивных игр «Дети Азии».

— В ходе совещания мы обратили внимание на необходимость проведения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работ, направленных на антитеррористическую защищенность объектов, на создание благоприятных условий для проживания российских и иностранных граждан, необходимость размещения в номерах и ресторанах предприятий гостиничного хозяйства информации об услугах на иностранных языках, — отметила министр торговли и продовольствия Инна Павленко. — Рекомендовано уделить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продукции сахалинских производителей при разработке новых блюд, формировании ассортимента реализуемой продукции в магазинах и точках общественного питания при гостиничных комплексах.

Кроме того, представителям гостиничного бизнеса предложено организовать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помещения, необходимые для хранения спортивного инвентаря, при необходимости решить вопросы приобретения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ой техники, необходимой для расчистки снега.

Напомним, международные спортивные игры «Дети Азии» состоятся на терри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 8 по 17 февраля 2019 года. Соревнования пройдут в восьми видах спорта: горных лыжах, сноуборде, биатлоне, лыжных гонках, прыжках с трамплина, фигурном катании, шорт-треке и хоккее.

В регионе уже практически готова инфраструктура для состязаний. В частности, это действующие спортивно-туристический комплекс «Горный воздух», где в начале года к зимней Олимпиаде готовились участники российской сборной, а также ледовые арены и новый биатлонный центр.

Оргкомитет по подготовке к Играм возглавил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полномочный представитель Президента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федеральном округе Юрий Трутнев.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остроят многоуровневую стоянку в рамках концессионного соглашения

Проект многоуровневой автостоянки открытого типа на 300 машино-мест по южной стороне улицы Детской осуществляется администрацией островной столицы и компанией «Сахалинжиниринг». Из регионального инвестиционного фонда будет оказана финансовая поддержка в размере 50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Это решение было озвучено на заседании межведомственной комисси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 рассмотрению вопросов предоставления господдержки инвестицио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Финансовая поддержка государства в рамках концессионного соглашения позволит быстрее окупить проект.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строительство идет с опережением сроков — уже возводится первый этаж.

Объект будет представлять собой шестиэтажное здание манежного типа с двумя лифтами и лестничными клетками. Въезд на территорию планируется осуществлять через шлагбаум. На первом этаже парковки расположатся места для маломобильных граждан.

— Появление подобной автостоянки позволит разгрузить улицу Детскую от автомобильного транспорта, которым пользуются жители этого микрорайона, а также лыжники, приезжающие на «Городуху», посетители зоопарка и парка культуры и отдыха. Сдать объект в эксплуатацию планируется в 2019 году, — сказал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Алексей Белик.

Кроме этого проекта, на заседании межведомст-

венной комиссии обсудили вопросы оказания финансовой помощи нескольким предприятиям, строящимся и уже действующим. Меры поддержки позволят компенсировать затраты на строительно-монтажные работы, процентные платежи, технологическое присоединение, покупку оборудования.

На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ах формируют запасы продовольствия на осенне-зимний период

В связи с растущим спросом на региональную продукцию, продолжается кампания по заключению прямых договоров на поставку социально значимых продуктов питания от сахалинских производителей.

На острова отгружаются картофель, овощи открытого и защищенного грунта, яйцо, птица, молочная продукция, безалкогольные напитки, консервы местн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колбасные изделия и мясо свинины. Формирование запасов необходимо для бесперебойного снабжения курильчан продуктами питания в осенне-зимний период.

Выполнять эту важную задачу помогает грузовое судно «КДН-1», вставшее с 14 августа на морскую линию между Сахалином и Курилами, и другие морские суда. Чтобы минимизировать расходы по доставке продовольствия на острова, тарифы на его перевозку субсидируются из областного бюджета.

Так, 5 октября на остров Итуруп доставлена очередная партия свежих овощей (свекла, морковь, капуста, огурцы, томаты) и картофеля общим весом 10 тонн. Данная продукция выращена в Томаринском районе на полях совхоза «Заречное» и компании «Красногорская заимка».

Реализовать эти и другие виды продукции от сахалинских производителей курильские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и планируют с минимальной торговой наценкой.

Ситуация по формированию запасов продуктов питания на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ах и обеспечению продовольствием жителей находится на постоянном контрол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ахалинский ЗАГС начинает работать в системе Един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реестра записей актов гражданского состояния

Автоматизированная система позволит сократить время оказания любой услуги до 15 минут. Кроме того, пропадет необходимость в заполнении бумаг, от заявителя потребуется лишь подпись.

В Едины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реестр вносятся все новые актовые записи: рождение, заключение брака, расторжение брака, установление отцовства, перемена имени, усыновление, смерть. Процедура перехода на электронный документооборот началась с 1 октября этого года. Ранее составленные актовые записи перенесут в систему до конца 2020 года.

— Программное обеспечение единовременно вводится в эксплуатацию на территории всех субъектов РФ, в связи с чем периодически происходят технические сбои системы. Это приводит к увеличению времени оказания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услуг. Но это временные трудности, которые будут устранены в скором времени, — отметили в ЗАГС. — На данный момент регистрация актов гражданского состояния производится во всех отделах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о с небольшой задержкой. По исполнению наши специалисты связываются с гражданами для выдачи документов.

Благодаря электронному реестру у сотрудников ЗАГС появляется возможность предоставлять гражданам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сервисы. Например, в личном кабинете Портала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услуг будут представлены записи актов о гражданине и его несовершеннолетних детях.

До введения новой системы каждый ЗАГС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выбирал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ое программное обеспечение, позволяющее осуществлять функции по регистрации актов гражданского состояния, а также решать иные сопутствующие задачи. Это делало невозможным создание единой базы данных по всей стране. Для решения этой задачи был создан единый федеральный ресурс об актах гражданского состояния. Нормативно-правовое обеспечение деятельности разработано Министерством юстиции РФ совместно с Министерством Финансов РФ. Оператором является Федеральная налоговая служба России.

Единый реестр является основой для создания Регистра населения — федерального ресурса, который должен связать сведения о гражданах РФ из различных ресурсов. В перспективе единый реестр установит общие стандарты и правила работы, устранил необходимость пересылки документов из одного ЗАГСа в другой, значительно ускорит и упростит межведомственное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между различными органам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власти. Получать сведения из реестра ЗАГС будут Министерство внутренних дел РФ, Министерство обороны РФ, Федеральная налоговая служба,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судебных приставов, Пенсионный фонд и Фонд обязательного медицинского страхования, Росреестр, Росгвардия, органы социальной защиты населения, главы местных администраций.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사할린에 직접 와서 무엇인가를 느껴보고 싶었습니다"

허진원 한국 극작가와의 인터뷰

(2면의 계속)

- 사할린을 선택한 이유는?

- 글썄요. 궁금했어요, 사할린이. 체호브를 좋아하기도 하고요. 한민족 디아스포라에 관심이 많습디다만, 그걸 다시 허구의 논리와 허구의 미학으로 표현하기에는 굉장한 난관이 기다릴 텐데요. 장담할 수 없는 점이 송구스럽지만, 직접 와서 무엇인가를 느껴보고 싶었습니다.

- 사할린에 오셔서 겪었던 것, 인상적인 순간, 소감을 부탁드립니다.

- 유즈노사할린스크의 낚시왕 '이춘봉 선생님'을 따라 오호츠크해 연안에서 연어를 잡던 순간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었던 최고의 순간이었습니다. 비바람 몰아치던 해변에서 결국 한 마리를 낚았는데요. 이때는 마침 추석을 맞아 한국에서 아내와 아들이 사할린에 방문했을 때였어요. 가족에게 반드시 제가 잡은 연어로 요리를 해주고 싶어서, 나를 비장하고 부지런히 밧을 던졌는데요. 간신히 한 마리가 걸린 겁니다. 좋았어요, 그때.

가장 인상적인 순간은 뭐니뭐니해도 '차이'라고 불리는 러시아식 홍차를 마시던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굉장히 엄숙하고 소중한 자리에 초대받았는데요. 저 역시 마음가짐이 무거운 채, 어르신을 통해 이런 저런 '사할린에서의 삶'에 관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보드카를 몇 잔 마시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알뜰팍한 상황에서 하필이면 제 '차이' 머그 잔을 보니 그야말로

매력적인 러시아 여성의 사진이 인쇄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잔이 그러니까 흐름, '마법의 잔'이었던 겁니다. 뜨거운 물을 부으면 온도가 상승하면서 그야말로 그 사진 속의 러시아 여성이 옷을 훌러덩 벗어 버리는, 그러니까 나체가 되어 버리는 그런 '멋진 잔'이었어요. 그 엄숙한 자리에서, 식은 땀 흘리며 힐끗힐끗 그 찻잔을 바라보던 '제 모습'과 그런 제 모습을 원망하던 '제 마음'이 떠오릅니다. '차이' 맛은 최고였어요, 물론. 두 잔은 더 마셨을라나? 아주 아주 뜨겁게.

- 파견기간의 한달 좀 넘었는데 앞으로 무엇을 더 할 계획인가요?

- 러시아어로 번역된 제 작품을 이곳 대학과 도서관에 기증할 일과 현지 아티스트와의 만남, 그리고 강연이 남아 있습니다. '한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선 그 사람과 16킬로 그램의 소금을 함께 먹어 봐야 알 수 있다(Чтобы понять человека надо с ним пуд соли съесть)'라는 속담을 되뇌이는 하루의 연속입니다. 사할린에서의 글들이 버무려져 작품으로써 세상에 등장해야 한다면, 어떤 표정으로 지금의 '오늘'과 약속을 청해야할 지, 고민입니다.

- 작가님의 남은 사할린 일정이 잘 마무리될 기원합니다. 12월 7일부터 12일까지 서울에서 예정된 초연 <절차상의 오류들 / 허진원 작, 서충식, 정일균 공동연출, 대학로 민송아트홀 /> 역시 성공적으로 공연되어지길 기원할게요.

사할린동포 잊지 않도록 제12회 대구의 밤 개최

(3면의 계속)

이날 행사에서 대구광역시 자치행정과 김상희 과장은 사할린 동포 어르신 한분 한 분께 와인 또는 음료 등을 손수 따르기도 해 눈길을 끌었다. 무엇보다도 이날 행사의 백미는 사할린주 한인 어르신과 대구 방문단(9명)이 어우러진 가요와 춤을 즐기는 무대였다. 사할린주 동포 한인 가수의 노래와 함께 대구 방문단, 사할린 동포가 하나가 되는 축제의 장이었다.

"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단재 신채호 선생의 말처럼 일제강점기 당시 사할린 지역으로 강제징용을 당하게 된 우리의 선조를 잊지 말고 다시는 이런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라며 "사할린 동포와 함께하는 대구의 밤 행사를 개최하는 것만큼이나 우리의 아픈 역사를 잊지 않고, 후손들에게 아픈 역사를 전달하여 사할린에 남은 우리 한인동포들을 잊지 않고 단절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사명이 아닌가 생각하는 바입니다."라고 하태균 회장은 표명하고 "민족통일대구시청년협의회는 13년 동안 사할린을 방문해서 한인동포들을 위한 활동을 해왔으며 대구의 밤 행사를 통해서 대구와 어르신들과의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라고 했다.

"제12회 <대구의 밤>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사할린주한인협회의 도움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민족통일대구시청년협의회는 주한인협회와 함께 더 큰 사업을 전개 하고, 그리고 주한인협회 사업에 적극적으로 지지하겠습니다."라고 하태균 회장이 덧붙였다.

(본사기자)

<21세기의 박물관들> 사할린 축제 진행

10월 12일부터 17일까지 제3회 <21세기의 박물관들>사할린주 박물관축제가 펼쳐진다. 축제에는 지방·학교 박물관, 박물관센터를 대표하는 100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전해졌다.

축제에는 홋카이도 문학박물관, 다르원국립박물관, 에르미타즈, 크림문학예술기념박물관, 하바롭스크 그로데코브박물관 등 20여 지역 박물관 대표들이 초대되어 참가할 예정이다.

새고려신문 살리자

새고려신문을 후원하고 싶은 분은 다음 통장으로 송금할 수 있다.

한국 농협중앙회 계좌번호 190-01-021311

예금주 BYA VIKTORIYA

2018 세계한인회장대회 폐막

세계한인회장 '한반도 평화 정착 위한 모국 정부 노력 지지'

'한반도 평화 정착 위한 모국 정부의 노력 지지', '모국 청년들의 해외 진출 지원', '재외동포 관련 헌법 조항 명문화 요청' 등 총 5개 조항 결의문 채택

차기대회 공동의장 강인희 러시아·CIS한인회총연합회 회장 이숙순 재중국한국인회 회장 선출

차세대 인재에 교육 기회 제공 위해 글로벌한상드림에 장학금 약 1,800만원 전달

2018 세계한인회장대회가 5일 오후 사흘간의 공식일정을 마치고 폐막했다.

75개국 한인회장과 연합회 임원 500명은 이날 오후 서울 잠실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모국 정부의 노력 적극 지지, 모국 청년들의 해외 진출 지원, 재외동포 관련 대한민국 헌법 조항 명문화 요청, 한민족의 상호 이해와 화합 증진을 위한 '재외동포 기념관' 건립 촉구 등 총 5개 조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어 오후 6시부터 진행된 폐회식에서는 2018 세계한인회장대회의 대회 공동의장인 임도재 아프리카중동한인회총연합회 회장과 백승국 대양주한인회총연합회 회장에게 공로패가 수여됐다.

또한, 한인회장들이 자발적으로 마련한 1,800만원의 장학금을 국내외 차세대 인재들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글로벌한상드림에 전달했다.

- 지난 해 처음으로 글로벌한상드림에 전달한 장학금을 통해 북한이탈청년 4명이 4개월의 어학연수와 취업지원교육의 기회를 얻었으며, 올해 전원 취업에 성공했다.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환송사에서 "대회기간 내내 모국과 동포사회의 상생 발전을 위해 고민하는 한인회장들의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며, "앞으로 모국의 평화정착과 번영에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라며, 세계로 뻗어나가는 하나의 대한민국의 원동력이자 정감다리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제12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약 500여명의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진

행됐다.

국민의례 이후 진행된 유공자 훈포상 시상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재외동포사회의 권익신장에 기여한 재외동포 유공자 훈포상자 중 대표 5명에 대한 정부포장을 전수했다.

또, 문 대통령과 지역별 대표 한인회장 12인과 재외동포 청년 대표자들이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분단을 넘어 평화의 기적을 이루기 위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함께 기원했다.

이어서 수잔 콕스 홀트 인터내셔널 회장의 '한인 입양인, 글로벌 사회의 시민'을 주제로 한 특별강연과 정당별 재외동포정책을 발표하는 정당정책포럼이 진행됐다. 오후에 진행된 전체회의에서는 한인회 운영사례 발표에서 최우수 운영사례로 선정된 탄자니아 한인회와 우수 운영사례로 선정된 LA한인회, 장려상으로 선정된 재일본한국인연합회, 재오스트리아연합회와 엘살바도르 한인회의 시상식이 있었다. 또, 내년 대회 공동의장에는 강인희 러시아·CIS 한인회총연합회 회장과 이숙순 재중국한국인회 회장이 선출됐다.

(재외동포재단 제공)

한식

한식은 문화다! 한식은 건강과 웰빙을 지향하는 음식으로 세계 식품소비의 트렌드에 부합하는 세계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음식입니다. 다양한 한식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백설기

멥쌀가루를 고물이 없이 시루에 안쳐 쪄낸 떡. 흰무리라고도 한다. 백설기는 말 그대로 멥쌀가루를 하얗게 쪄낸 떡이다. 티없이 깨끗하고 신성한 음식이라는 뜻에서 어린이의 삼칠일·백일·첫돌의 대표적인 음식으로 쓰이고 사찰에서 재를 올릴 때 또는 산신제·용왕제 등 토속적인 의례에 많이 쓰인다.

설기떡은 김해나 웅천 등지에서 출토된 시루, 안악고분벽화의 시루에다 무엇인가를 찌고 있는 아낙네, 무문토기시대의 유물인 제분용 연석 등으로 미루어, 1~2세기경부터 존재한 것으로 추측된다.

또, 『삼국유사』 효소왕대죽지랑조에 설병(舌餠)이라는 말이 나온다. 그 음이 설고(雪餠)와 비슷한 점을 들어 이 설병을 백설기로 보기도 한다. 따라서 백설기에 관한 중국 기록은 남송 말기의 『무림구사 武林舊事』에 설고라는 이름으로 나오고 있으므로 백설기에 관한 기록은 중국보다 앞섰다고 할 수 있다. 『목은집 牧隱集』 속의 <영설고 詠雪餠>에서 설기떡을 절찬하였고 『지봉유설』에 고려에서는 쑥설기떡을 음식물의 으뜸으로



삼는다고 한 기록이 있다. 이것으로 미루어 고려시대에는 설기떡이 완전히 뿌리를 내린 시대라 할 수 있다.

17세기경에는 음식의 재료뿐 아니라 만드는 방법까지를 적은 여러 조리서가 등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백설기라는 이름은 『규합총서 閏閣叢書』에만 나오고, 『규곤시의방 閏壺是議方』에는 밤설기, 『시의전서 是議全書』에는 막우설기가 기록되어 있다.

조리서에 고려시대에 뿌리를 내렸던 설기떡에 관한 기록을 적은 이유는 설기떡이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쇠퇴된 것이 아니라 식품 이름이 시대와 지역에 따라 변하였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지금도 백설기는 거의 모든 행사에 사용되고 있으며 지역이나 계절에 상관없이 만들어 먹는 가장 대중적인 떡이다.

(코리아넷)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Вместе с тем на 2,6% стала дороже свинина, на 2,5% — мороженая разделанная рыба (кроме лососёвых пород), на 2,4% — мясо птицы, на 0,5 — 1,1% — молоко и молочная продукция, сливочное масло, мороженая неразделанная рыба, колбасные изделия, мясной фарш.

Снижение цен отмечалось на большинство наблюдаемых видов медикаментов.

На региональном рынке нефтепродуктов зафиксировано повышение средних цен на дизельное топливо и автомобильный бензин на 0,4-0,5%. Средняя цена дизельного топлива по области в сентябре 2018 года составила 50,65 рубля за литр, бензина марки АИ-92 — 45,67 рубля за литр, АИ-95 — 47,47 рубля, АИ-98 — 50,65 рубля.

В сентябре, в начале нового учебного года, традиционно дорожают услуги в системе образования. Так, плата за обучение в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организациях высшего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увеличились на 13,2%, среднего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 на 48%,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занятия для детей дошкольного возраста — на 1,3%, проживание в студенческом общежитии — на 0,4%.

Среди других наблюдаемых видов услуг на 5,9-9,2% увеличилась стоимость туров на отдых в Таиланд и Грецию. Из медицинских услуг лечебный массаж подорожал на 8,7%.

Стоимость условного (минимального) набора продуктов питания в расчете на месяц в среднем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конце сентября составила 5498,97 рубля и по сравнению с предыдущим месяцем снизилась на 0,3%. Стоимость набор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оставила 5359,72 рубля (за месяц рост на 0,2%), Поронайске — 5212,80 рубля (за месяц рост на 0,6%), Корсакове — 5411,09 рубля (за месяц снижение на 1,4%), Охе — 6268,69 рубля (за месяц снижение на 1,1%),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Сахалинстата.

사할린 연금자에게 무료 항공이용 전표 발급

가을철 휴양차 여행을 고심하는 무직의 연금자들은

러시아 연금재단에서 제공하는 특별 무료 항공이용 전표를 받을 수 있다. 올해 사할린과 쿠릴지역에서는 100여 명 가까이 정부가 제공하는 이 기회를 이용했다.

사할린과 쿠릴지역 무직의 연금자들은 고향과 장에 따른 연금보험을 받았고, 러시아 연방지역 연금재단으로부터 특별 전표를 발급받아 항공사에서 무료 왕복 항공이용권으로 교환할 수 있게 되었다.

무료 왕복 항공이용권은 다음과 같이 제공한다.
유즈노사할린스크 - 블라디보스톡 - 유즈노사할린스크
유즈노사할린스크 - 하바로브스크 - 유즈노사할린스크
유즈노사할린스크 - 노보시비르스크 - 유즈노사할린스크
유즈노사할린스크 - 모스크바 - 유즈노사할린스크
유즈노사할린스크 - 상크트페테르부르크 - 유즈노사할린스크

유즈노사할린스크 - 소치 - 유즈노사할린스크
유즈노사할린스크 - 크라스노다르 - 유즈노사할린스크
전표를 받기 위해 연금자는 거주지의 러시아 연금재단 관할지역 고객 서비스부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전표 발급요건은 2 가지가 있다.

제1요건: 사할린의 주민들이 휴양차 친척이나 친구들을 방문할 경우에 연금자의 체류 기간과 체류 장소에 대한 정보가 담긴 전표를 초대하는 측으로부터 받아서 러시아 연금재단에 제시해야 한다.

현재 요구되는 전보 양식은 간단해졌다. 우체국에서 전보를 확인할 필요없이 편리를 위해 러시아 연방 연금재단 사이트에는 전보 샘플양식이 제공되어 있다.

제2요건: 내국인은 차후 휴양지, 요양소, 또는 단체 휴양서비스가 제공되는 곳에서 체류를 확인하는 별도의 증빙서나 여행증명서를 제출할 수도 있다.

올해 사할린지역 연금자 95명이 휴양을 위한 왕복 무료항공이용 전표를 사용했다고 주 러시아 연금재단 지역 사무소 홍보실이 전했다.

Сахалинским пенсионерам напоминают о талонах на бесплатный авиаперелет

Неработающие пенсионеры, раздумывающие о поездке на отдых осенью, могут получить в ПФР спе-

циальные талоны на бесплатный проезд. В нынешнем году почти 100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уже воспользовались этой возможностью,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государством.

Сахалинские и курильские неработающие пенсионеры, получатели страховых пенсий по старости и по инвалидности, в территориальных органах Пенсионного фонда РФ могут получить специальные талоны для обмена их в транспорт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на бесплатные авиабилеты к месту отдыха и обратно.

Авиабилеты предоставляются по направлениям:
Южно-Сахалинск — Владивосток — Южно-Сахалинск;
Южно-Сахалинск — Хабаровск — Южно-Сахалинск;
Южно-Сахалинск — Новосибирск — Южно-Сахалинск;
Южно-Сахалинск — Москва — Южно-Сахалинск;
Южно-Сахалинск —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 Южно-Сахалинск;

Южно-Сахалинск — Сочи — Южно-Сахалинск;
Южно-Сахалинск — Краснодар — Южно-Сахалинск.

Для получения талона пенсионеру необходимо обратиться в клиентскую службу ПФР по месту жительства. Оснований для выдачи талона может быть два.

Первое основание: если островитяне собираются на отдых к родственникам или друзьям, то в ПФР необходимо предоставить телеграмму от принимающей стороны с информацией, что пенсионер будет находиться именно в этом населённом пункте в конкретный период времени.

Требования к телеграмме сегодня упрощены. Её не нужно заверять в почтовом отделении. Для удобства образец телеграммы представлен на сайте Пенсионного фонда РФ.

Второе основание: гражданин может представить путевку или иной документ, подтверждающий его будущее пребывание в доме отдыха, санатории или в ином месте, где предоставляются услуги по организации отдыха.

В нынешнем году 95 островных пенсионеров уже воспользовались специальными талонами для проезда к месту отдыха и обратно,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областного ОПФР.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들에서)

реклама

bilet.sakh.com

БИЛЕТЫ

в кино

онлайн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사장(주필) 배 워토리아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	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4-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1-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53740 Тираж 13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